

『행동분석·지원연구(창간호-2019)』의 특성 및 학술적 가치 분석

백종남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박계신*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행동분석·지원연구』 2014년 창간호부터 2019년 12월호까지 학술지 발행 현황, 학술지 활용성 및 체계성, 학술지 질적 향상 노력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 발행 편수와 게재 논문 수는 창간 이후 지속하여 증가하였고, 수록 논문의 내용과 연구 방법이 학술지 주제와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 저자의 지역 분포적인 측면에서는 투고원(投稿源)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학술지의 활용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게재 논문 접근성이 높고, 학술지 인용지수와 논문집 구성 및 체계성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술논문 온라인출판 표준규격(JATS)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관리 시스템 활용, 심사 절차의 엄정성, 연구윤리 강화 등 학술지의 질적 향상 노력이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향후 인간 대상 연구 활동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와 IRB 요구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행동분석·지원연구』의 전문 학술지로서 지향해야 할 활용성, 체계성, 윤리성 및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학술지의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한국행동분석학회, 행동분석·지원연구, 응용행동분석, 긍정적 행동지원, 학술적 가치

* 교신저자(gspark@kornu.ac.kr)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행동분석학회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응용행동분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보급하고 가정, 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 분석과 중재를 담당하는 행동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 7월 20일에 창립되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국제행동분석학회(ABAI)가 창립되어 학술 및 응용연구와 실천적 치료/교육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면서 행동분석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으며(홍준표, 2014), 현재 학회 산하에는 24개의 특수분과학회(SIG)와 국내·외 60여 개의 지역학회가 소속되어 있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학술연구와 응용 서비스의 지원은 물론 행동분석 자체의 전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행동분석학회는 국내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이하 ABA라 함) 및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이하 PBS라 함) 두 분야의 전문가 역량을 결집하고 학술연구나 실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 것이 포괄적인 창립 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한국행동분석학회, 2019).

한국행동분석학회의 주요 연구 및 실천 분야인 ABA 기반 중재는 많은 사람들의 도전적 행동을 경감시키며 적응적인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박계신, 2016; 백종남, 2020; 이도영, 이성봉, 2019; Maurice, Green, & Luce, 1996; McPhilemy & Dillenburger, 2013; Swanson & Sachse-Lee, 2000). 인간 행동의 사회적 적응력 증대를 강조한 ABA는 Watson의 실험실 환경의 동물 실험 연구에 근거한 인간 행동의 표면적 변화를 추구하는 실험행동 중심의 행동주의와 달리 실험실 연구의 결과를 인간생활의 실제적 적용에 활용함을 강조하는 Skinner의 행동주의 입장을 따른다. Skinner는 ABA를 ‘유기체(인간, 특히 아동)의 행동 원리에 근거한 과학적 체계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과학적인 체계화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증거와 그 증거의 객관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상복, 2008). ABA는 198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행동의 기능성 평가 연구를 전환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실용성이 크게 신장되었다(홍준표, 2014).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학생들의 학업적·사회적·정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가 검증된 학교차원의 다층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Lewis et al., 2017).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School 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이하 SWPBS라 함)은 학교 내 사회적·정서적 문제의 예방 및 조기 중재를 위한 지원 체제로 학생의 요구에 반응하여 점차 강도 있는 중재를 제공하는 다층지원체제로(박계신, 2020; 백은희, 박계신, 이선희, 2019; 백종남, 조광순,

2013; Horner, Sugai, Anderson, 2010; Sugai & Horner, 2006), ABA의 원리를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과학적 체계이며 학생들의 적절한 사회적 행동 형성, 학교 분위기 향상 및 학업 수행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계신, 2013; 백종남, 조광순, 2013; 송민영 등, 2018; 임은숙, 황복선, 2019; Horner, Sugai, & Anderson, 2010; Sugai & Horner, 2006).

『행동분석·지원연구』 발행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문제 대응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왔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ABA의 이론과 실재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지 발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0년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원에 연구 성과가 검증된 ABA 기반 PB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집약하고 공유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부족하였다(한국행동분석학회, 2019).

『행동분석·지원연구』는 미국의 ABA 연구의 대표 학술지인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JABA)』와 PBS 연구의 저명 학술지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PBI)』의 철학적 배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한국행동분석학회, 2019). Skinner는 1953년 『Science and Human Behavior』를 출간하면서 오늘날 행동치료의 근간이 되는 ABA의 기초를 놓았고, 1968년에는 아동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 연구를 위한 『JABA』 창간에 크게 기여하였다(이상복, 2008). 『JABA』는 분기별 발행되는 상호검토 학술지로 ABA와 관련된 실험 연구를 게재한다. 1968년 창간호가 발행된 이래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간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ABA 연구의 최고 학술지로, 2020년 7월 현재 Journal Impact Factor(JIF)가 2.108(Wikipedia, 2020)로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PBI』의 발행 목적은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 환경에서 효과적인 행동 지원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삶에서 종합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경험적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개념적 틀을 향상시키며 연구자, 전문가, 가족 및 정책 입안자를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게재 논문은 행동 지원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이 있으며, 행동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연구 기반의 PBS 원칙을 제공한다. 『PBI』 또한 JIF가 2.683으로 42개 교육, 특수교육분야의 학술지 중 3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SAGE Publishing, 2020).

『한국행동분석학회』는 『JABA』, 『PBI』의 학술적 의의와 성과를 지향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특수교육 학분 분야의 발전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 『행동분석·지원연구』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회(상반기 6월 30일/하반기 12월 31일) 발간하였고, 2019년부터는

매년 3회(4월, 8월, 12월말) 발간하였다. 본 학술지는 창립 3년만인 2017년 8월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평가에서 등재후보지 유지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지 1년만인 2018년 12월 ‘신생·소외분야 학술지 지원 사업’에서 신생·소외분야 학술지로 선정된 이래, 2019년 10월 2년 연속으로 신생·소외분야 학술지로 선정되어 학문적 가치와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본 연구는 창립이후 지난 6년간(2014-2019) 발행되어온 『행동분석·지원연구』의 특징과 학술적 가치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본 학회 및 학술지의 성격부합도와 학술적 가치를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본 학회가 지향해야 할 일관된 학술지의 전개방향에 대한 효과적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향후 학술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행동분석·지원연구』 창간호부터 제6권 제3호까지의 학술지 발행 현황, 학술지 활용성 및 체계성, 학술지 질적 향상 노력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으로 양적 또는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창간호부터에서 2019년 12월호인 제6권 제3호까지 6년 동안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비롯한, 학술지 편집 규정, 학회 온라인 시스템, 워크숍 및 학술대회 발간 자료, 심사 과정 서류 등 학술지 편집 관련 다양한 자료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내용분석을 위해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에 따라 자료의 범주화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추론하여야 한다(Mayring, 2000).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 기준은 『2020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평가』 체계의 학술지 계속평가 평가 지표를 참고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20a).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지표는 국내 학술지의 학문적 가치 및 기여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진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그 체계를 학술지 발행 현황, 학술지 활용성 및 체계성, 학술지 질적 향상 노력의 세 영역으로 다시 구분하였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과 평가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행동분석·지원연구』 분석 항목 및 평가 내용

| 구분 | 항목 | 평가 내용 |
|---------------|---------------|--|
| 학술지 발행 현황 | 연간 학술지 발행 실적 | 연간 학술지를 얼마나 발행하는가? |
| | 학술지와의 주제 부합도 |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 학술지 주제와 부합하는가? |
| | 수록논문의 연구방법 유형 |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연구 방법이 학술지 주제를 연구 하는데 적절한가? |
| | 참여 저자 현황 | 연구 참여 저자의 소속 및 지역은 학술지의 저변 확장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한가? |
| 학술지 활용성 및 체계성 | 독자(회원) 확보 현황 | 학술지의 주 구독층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계재 논문의 접근성 | 독자의 계재 논문 활용을 위한 편의적 접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
| | 학술지 인용 | 학술지의 KCI 인용지수(2년 IF, 5년 IF, 중심성 지수)는 어떠한가? |
| |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 | 편집 논문의 가독성, 저자의 소속기관과 표기 명확성,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가독성이 갖추어져 있는가? |
| 학술지 질적 향상 노력 | 온라인 관리 시스템 활용 |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엄정하고 체계적인 심사 관리가 되고 있는가? |
| | 심사 절차의 엄정성 | 투고논문 투고·심사제도 및 규정에 따라 적용 및 관리하는가? |
| | 연구윤리 강화활동 | 연구(출판) 윤리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과 자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 |
| | 워크숍 및 학술대회 개최 |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워크숍 및 학술대회 개최하는가? |

II. 학술지 발행 현황

1. 연간 학술지 발행 실적

『행동분석·지원연구』는 2014년 창간호 1권 1호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11회 발행하였다. 학술지 연간 발행 횟수는 2014년, 2015년 각 연1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2회 발행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연3회 발행하여 왔다. 이와 함께 수록 연간 논문편수 역시 2014년, 2015년 각 4편, 2016년 8편, 2017년 7편, 2018년 12편, 2019년 14편 등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2020년 현재에도 학술지는 연간 3회 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매년 14편 이상의 논문편수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행동분석·지원연구』 연간 발행 횟수 및 수록 논문 편수(2014~2019)

2. 학술지와 주제 부합도

『행동분석·지원연구』가 추구하는 주요 분야는 크게 ABA와 PBS라고 볼 수 있다. 『행동분석·지원연구』의 연구 주제별 수록논문 편수를 알아본 결과 ABA 관련 31편(63%), PBS 관련 18편(37%)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는 본 학술지가 ABA와 PBS 이론과 실제의 두 가지 주제만을 다루는 희소성 가치 지향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2) 『행동분석·지원연구』 주제별 수록 논문 편수(2014~2019)

3. 수록논문의 연구 방법 유형

『행동분석·지원연구』의 연구 유형별 수록논문 편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연구가 34편(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헌연구 13편(27%), 조사연구 2편(4%)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를 분석 방법으로 살펴보면, 시각적 분석이 28편(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사후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이 각각 3편(6%)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는 내용분석 9편(19%), 메타분석 4편(8%)으로 나타났다.

<표 2> 『행동분석·지원연구』의 연구 유형별 수록 논문 편수(비율)

| 연구유형 | 문헌연구 |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 |
|----------|--------|------|------|--------|--------|----------|
| | 내용분석 | 메타분석 | | 인터뷰분석 | 시각적 분석 | 사전-사후 분석 |
| 논문 편수(%) | 9(19) | 4(8) | 2(4) | 28(57) | 3(6) | 3(6) |
| | 13(27) | | | 34(69) | | |

『행동분석·지원연구』 게재 논문의 다수(69%)를 차지하는 실험연구 논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연구 대상 및 장소별 수록논문 편수

『행동분석·지원연구』 실험연구 대상 및 장소별 수록논문 편수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실험연구 논문의 연구 대상은 자폐성장애 15편(44.1%)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지적장애 5편(14.7%), 발달 장애 및 중복장애 4편(11.8%), 발달지체 3편(8.8%), 장애위험 등 기타 7편(20.6%)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의 학교급에 따른 논문 편수는 유아 12편(35.3%), 초등 13편(38.2%)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험 장소는 유치원 및 일반 통합학급 16편(47.1%), 특수학교 10편(29.4%), 센터/복지관 5편(14.7%)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 논문의 연구 대상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발달 장애 및 중복장애 등의 장애위험이나 장애를 지닌 유·초·중등 학생이며 실험환경은 유치원, 일반통합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센터, 복지관, 특수학교, 가정 등 다양한 현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본 학술지가 지향하는 ABA의 기본 철학인 실험적 통제가 아닌 실제적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중재를 통한 행동지원이 구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실험연구의 독립/종속 변인별 수록논문 편수

『행동분석·지원연구』 실험연구의 독립/종속 변인별 수록논문 편수를 알아본 결과는

<표 3> 『행동분석·지원연구』의 실험연구 대상 및 장소별 수록 논문 편수(비율)

| 구분 | 분류 | 편수(n) | 비율(%) |
|--------------|-------------|-------|-------|
| 연구대상 장애유형 | 자폐성장애 | 15 | 44.1 |
| | 지적장애 | 5 | 14.7 |
| | 발달장애 및 중복 | 4 | 11.8 |
| | 발달지체 | 3 | 8.8 |
| | 장애위험 등 기타 | 7 | 20.6 |
| 연구대상 학교급 | 유아 | 12 | 35.3 |
| | 초등 | 13 | 38.2 |
| | 중등 | 6 | 17.6 |
| | 전공과 | 3 | 8.8 |
| 실험장소 | 유치원/일반 통합학급 | 16 | 47.1 |
| | 일반학교 특수학급 | 2 | 5.9 |
| | 센터/복지관 | 5 | 14.7 |
| | 특수학교 | 10 | 29.4 |
| | 가정 | 1 | 2.9 |
| 전체 | | 34 | 100.0 |

<표 4> 『행동분석·지원연구』 실험연구의 독립/종속 변인별 수록논문 편수(비율)

| 구분 | 분류 | 편수(n) | 비율(%) |
|------|--------------|-------|-------|
| 독립변인 | 개별차원 PBS | 9 | 26.5 |
| | 보편차원 PBS | 5 | 14.7 |
| | ABA 기반중재 | 20 | 58.8 |
| 종속변인 | 언어행동/학습참여 행동 | 19 | 55.9 |
| | 친사회적 행동 | 8 | 23.5 |
| | 문제행동 | 4 | 11.8 |
| | 부모인식/교사 효능감 | 3 | 8.8 |
| 전체 | | 34 | 100.0 |

<표 4>와 같다. 첫째, 실험연구 논문의 종속변인은 개별차원 PBS 9편(26.5%), 보편차원 PBS 5편(14.7%), ABA 기반 중재 20편(58.8%)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험연구 논문의 종속변인은 언어행동/학습참여 행동이 19편(5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친사회적 행동 8편(23.5%),

문제행동 4편(11.8%), 부모인식 또는 교사 효능감 3편(8.8%)으로 나타났다.

본 학술지의 독립변인은 개별차원 혹은 보편차원의 PBS와 ABA 기반 중재로 나타났다. ABA 기반 중재에는 그림교환의사소통, 개별시도교수, 언어/시각 촉진, 맨드와 택트, 기능적 행동평가, 예방-교수-강화, 자기관리전략, 동기화 조작, 선행사건중재, 협동놀이, 화자집중훈련, 부모교육, 자기결정, 교수적 수정, 협동 스토리 매핑, 활동중심 갈등해결 등이며, 종속변인은 언어행동, 학습참여 행동, 친사회적 행동, 문제행동 등이 포함된다.

실험연구의 연구 방법 분석 결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언어 행동, 친사회적 행동, 학습 참여 행동 및 과잉행동, 자해행동, 상동행동, 자기 자극적 행동 등의 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위해 연구 효과가 검증된 ABA 방법 또는 PBS 방법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연구하여 산학연 및 가정에서의 현실적 응용력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실험 논문의 세부 내용 또한 학술지의 발행 취지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참여 저자 현황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행동분석 · 지원연구』 게재 논문 저자는 총 115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소속 및 지역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행동분석 · 지원연구』 참여 저자의 소속은 대학교 72명(62.6%), 유·초·중등 학교 25명(21.7%), 복지기관 등 기타 18명(15.7%)으로 나타났다. 저자의 직업으로 볼 때 전문 학술지의 특성상 대학교수의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러나 유·초·중등 학교 교사, 보육교사, 치료사, 장학사, 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어 본 학술지의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학회가 교육 및 치료 현장에서 직면하는 장애학생들의 행동문제에 대한 실천적이며 유용한 대안적인 분야인 ABA나 PBS를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교육과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투고원이 형성되는 이유는,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등을 통해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고 경험적 연구 성과를 다루는 것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지역별 저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충남 31명(26.9%), 경기 30명(26.0%), 서울 21명(18.2%), 외국 10명(8.7%)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남과 인천이 각 1명(0.8%)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충청권과 서울, 경기, 외국에서 높은 참여를 보인 반면, 그 외 지역에서의 참여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저자의 지역 분포로 볼 때 해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다소 있으므로 향후 학술지 '투고원(投稿源)'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 5〉 『행동분석·지원연구』 참여 저자의 소속 및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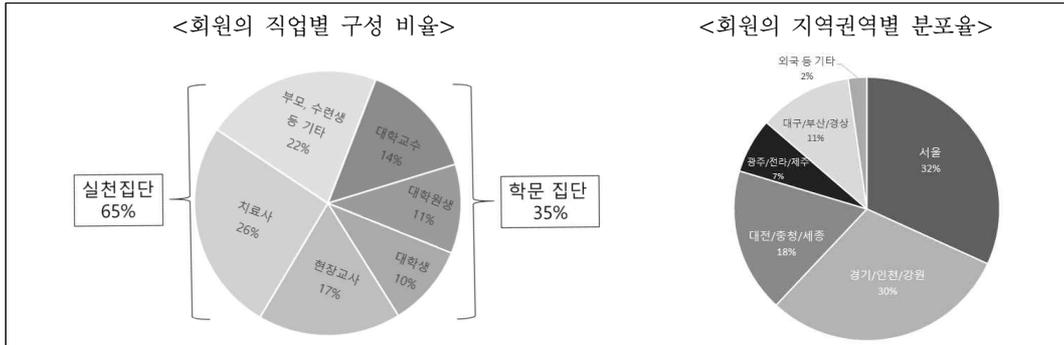
| 지역 | 대학교 | | 유·초·중등 학교 | | 복지기관 등 기타 | | 계 | |
|----|--------|-------|-----------|-------|-----------|-------|--------|-------|
| | 저자수(명) | 비율(%) | 저자수(명) | 비율(%) | 저자수(명) | 비율(%) | 저자수(명) | 비율(%) |
| 서울 | 4 | 5.6 | 5 | 20.0 | 12 | 66.7 | 21 | 18.2 |
| 경기 | 16 | 22.2 | 9 | 36.0 | 5 | 27.8 | 30 | 26.1 |
| 인천 | 1 | 1.4 | 0 | 0.0 | 0 | 0.0 | 1 | 0.9 |
| 충북 | 2 | 2.8 | 4 | 16.0 | 0 | 0.0 | 6 | 5.2 |
| 충남 | 29 | 40.3 | 2 | 8.0 | 0 | 0.0 | 31 | 27.0 |
| 세종 | 0 | 0.0 | 1 | 4.0 | 1 | 5.6 | 2 | 1.7 |
| 대전 | 0 | 0.0 | 3 | 12.0 | 0 | 0.0 | 3 | 2.6 |
| 광주 | 2 | 2.8 | 0 | 0.0 | 0 | 0.0 | 2 | 1.7 |
| 전북 | 6 | 8.3 | 0 | 0.0 | 0 | 0.0 | 6 | 5.2 |
| 전남 | 0 | 0.0 | 1 | 4.0 | 0 | 0.0 | 1 | 0.9 |
| 부산 | 2 | 2.8 | 0 | 0.0 | 0 | 0.0 | 2 | 1.7 |
| 외국 | 10 | 13.9 | 0 | 0.0 | 0 | 0.0 | 10 | 8.7 |
| 계 | 72 | 100.0 | 25 | 100.0 | 18 | 100.0 | 115 | 100.0 |

Ⅲ. 학술지 활용성 및 체계성

1. 독자(회원) 확보 현황

『행동분석·지원연구』의 활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자(회원) 현황을 알아보았다. 2020년 5월 현재 『행동분석·지원연구』의 독자(회원) 수는 총 757명으로 정회원 151명, 일반회원 565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구성 비율은 대학교수 14%, 대학원생 11%, 대학생 10%, 현장교사 17%, 치료사 26%, 부모, 수련생 등의 기타 22% 등 독자(회원)들의 직업(소속 기관)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독자들을 학문집단과 실천집단으로 분류해 볼 때, 학문집단으로 대학교수, 대학원생, 대학생을, 실천집단으로 현장 교사, 치료사, 부모, 수련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문집단은 35% 정도이나 실천집단은 65%로 현장 실천집단의 독자 비율이 3.5: 6.5로 약 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분석·지원연구』가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현장 실천적 가치를 지향함에 따라 학문집단 보다 현장 실천집단의 독자 비율이 높게 확보되고 있고, 학술지의 현장 활용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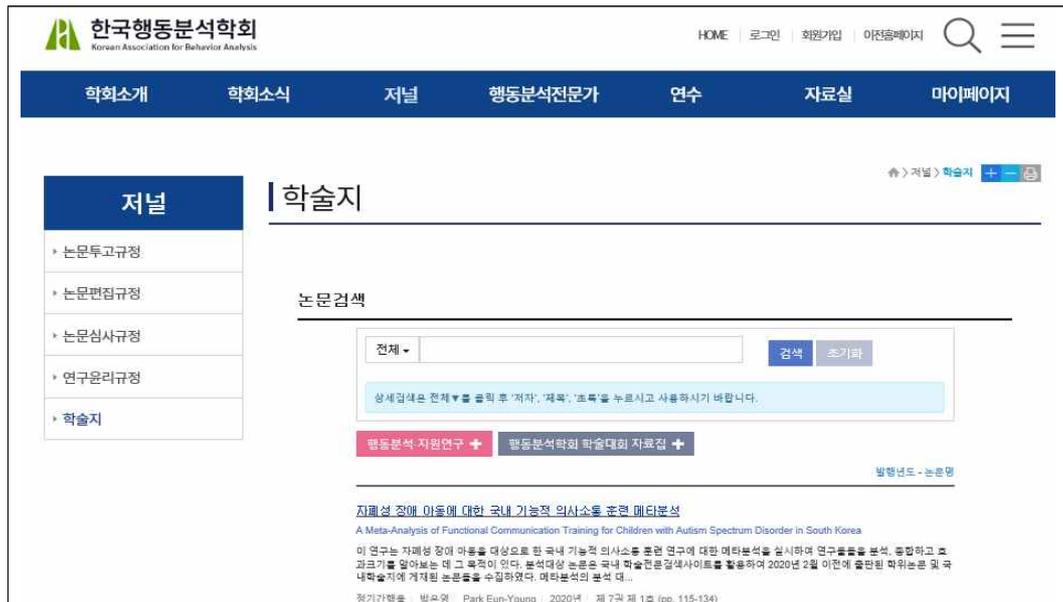


〈그림 3〉 학술지 회원(독자)의 직업 및 지역권역별 분포

독자(회원)의 지역권역별 분포는 서울 32%, 경기/인천/강원 30.0%, 대전/충청/세종 18%, 대구/부산/경상 11%, 광주/전라/제주 7% 등 지역 권역별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 전국 각지에서 본 학술지의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게재논문의 접근성

『행동분석 · 지원연구』는 학술지 홍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본 학회 홈페이지(2014년 7월부터)에서 창간호부터 수록 논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그림 4〉 학회 홈페이지에서 학술지 무상 제공

에서도 로그인 없이 수록 논문의 확인이 가능하며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참고문헌에 대한 정확한 식별 및 접근을 위하여 한국행동분석학회는 2020년 5월 KISTI와의 협약을 통해 Prefix를 발급받았으며, 게재논문마다 DOI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학술지의 서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3. 학술지 인용

『행동분석·지원연구』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0월, 2년 연속 신생·소외분야 학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술지로 신생·소외분야 학술지지원 사업 이전인 2018년 8월 기준 KCI 즉시성 비율(게재 논문이 인용에 걸리는 시간 또는 당해 연도 인용되는 빈도 측정)이 0.14에 미쳤으나 2019년 8월 기준 0.92로 향상되었다(<그림 5>). 즉시성 비율은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에 걸리는 시간 또는 저널에 수록된 논문이 당해 연도 인용되는 빈도를 측정, 얼마만큼 빨리 인용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행동분석·지원연구』는 빠른 속도로 다른 논문에 게재되고 있어 추후 학술분야에서의 영향력과 중심성이 기대된다.

| 2018년 8월 기준 | 2019년 8월 기준 |
|-------------|-------------|
| | |

〈그림 5〉 2018년과 2019년 기준 학술지 즉시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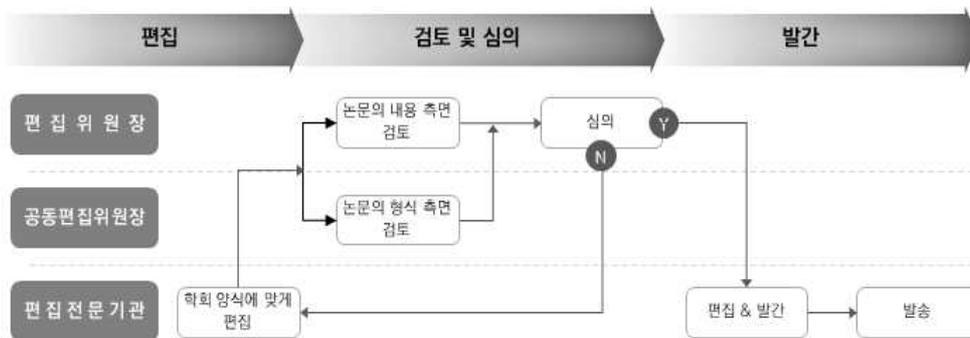
본 학회지의 2019년 7월 기준 KCI 2018 사회과학 분야 인용지수의 KCI 중심성 지수(SJR)는 3.38로 나타났다. IF(Impact Factor)가 단순 피인용 횟수에만 의존하는 것과 달리 중심성 지수는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들의 종수와 명성도(名聲度)에 기초한다. 또한 IF는 피인용 횟수라는 한 가지 요인만을 고려하는 반면, 중심성 지수는 피인용 횟수 외에 인용하는 학술지의 수와 명성도, 네트워크상의 유기적 인용관계를 고려한다. 따라서 본 학회지의 중심성 지수가 3.38로 나타난 것은 본 학회지 게재 논문을 인용하는 타 학술지의 수와 명성도가 비교적 높고, 네트워크상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

1) 편집 논문의 가독성

『행동분석 · 지원연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투고규정 제7조(논문작성양식)에 편집 용지 종류, 여백 주기,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등 기본 형식을 규정하였으며, 세칙에 논문 제목, 저자명, 저자소속, 요약, 주제어 등 논문 정보를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집 규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학술지의 구성과 논문 형식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에서 원고 작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투고자들이 본 학술지의 형식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원고 샘플’을 hwp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동분석 · 지원연구』는 각주의 사용을 금하고 후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후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내용의 완전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행동분석 · 지원연구』는 논문형식과 내용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학술지 매 호 발간 전 본 학회 2인의 편집위원장과 전문 편집 기관과의 삼각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학술지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내용 측면을, 공동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형식을 엄격하게 검토한 후 투고자에게 재수정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그림 6>).



〈그림 6〉 논문형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삼각검증 절차

2)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표기 명확성

2020년 2월 한국행동분석학회는 연구윤리규정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를 일부 개정하여 연구자의 소속, 직위(교수, 강사, 학생, 박사후 연구원 등의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투고규정 제3조(투고자격)에서 소속에 따른 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동분석 · 지원연구』 투고규정 제7조(논문작성양식)에 논문의 표지에 저자소속, 국문초록, 교신저자의 이메일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저자소속 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문단정렬, 글꼴, 크기 등을 지정하고 있고, 영문초록에 저자명을 표시하고 있으며, 각주

에 교신저자 소속 및 소개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림 7>).

| 개정 조항 | 개정 후(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조 (투고자격) | 제 3 조 (투고자격 및 저자정보 표시방법) ⑤ 논문 발표 시, 논문에 각 논문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표기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30%;">대상</th> <th style="width: 70%;">표기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대학/ 대학원 소속</td> <td style="text-align: center;">교수(전임/비전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00대학교 00과, 교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00대학교 00과, 강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00대학교 00과, 학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박사후 연구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00대학교 00과, 박사후 연구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초·중등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00학교, 학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00학교, 교사)</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직위가 있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소속/ 직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직위가 없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r> </tbody> </table> | | 대상 | 표기방법 | 대학/ 대학원 소속 |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00대학교 00과, 교수) | 강사 | 성명(00대학교 00과, 강사) | 학생 | 성명(00대학교 00과, 학생) | 박사후 연구원 | 성명(00대학교 00과, 박사후 연구원) | 초·중등학교 | 학생 | 성명(00학교, 학생) | 교사 | 성명(00학교, 교사) | 기타 | 소속/직위가 있는 경우 | 성명(소속/ 직위)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 | 대상 | 표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 대학원 소속 |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00대학교 00과,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 성명(00대학교 00과, 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 | 성명(00대학교 00과,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박사후 연구원 | 성명(00대학교 00과, 박사후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초·중등학교 | 학생 | 성명(00학교, 학생) | | | | | | | | | | | | | | | | | | | | |
| | | 교사 | 성명(00학교, 교사)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소속/직위가 있는 경우 | 성명(소속/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7>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표기 규정 개정

3)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제고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논문투고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한글 요약 10줄 이내로 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의 내용으로 초록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 질적연구와 같이 텍스트의 양이 많은 경우 한글 요약이 13줄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둘째, 영문 요약 초록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로 인해 그 양의 초과를 허용하지만, 1페이지 이내에서 한글 요약과 그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논문의 주제어는 3-5개의 주제어를 한글요약과 영문초록이 일치하게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넷째, 게재 확정 논문 초록이 “이 논문 전체를 읽어야 할 이유”가 보일 수 있도록 2인의 편집위원장과 2인의 편집 간사가 점검하고 있다.

IV. 학술지 질적 향상 노력

1. 온라인 관리 시스템 활용

한국행동분석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한국행동분석학회 편집규정>을 두어 양질의 『행동분

석·지원연구』 학술지 발간을 위해 학술지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심사서 검토, 논문 수정 사항 적절성 심의 게재 여부 판단, 논문심사과정의 관리 및 출판 등 학술지 발간 관련 제반 업무를 체계적이며 엄정하게 주관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2019년 12월 6권 3호부터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을 활용함으로써 학술지 발간 절차의 체계성 및 엄정성을 확보하였다. 논문투고 및 심사의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이하 JAMS, <https://kaba.jams.or.kr>)으로 진행하여 과정의 투명성과 체계성, 엄정성을 유지하여 관리가 되고 있으며, 모든 심사서는 학술지 발행 이후에도 별도의 파일로 보관·관리하고 있다.

- 단계 1: JAMS에서 개인정보, 사사정보 등 투고자 정보가 삭제된 논문을 다운로드(download) 하여 고유번호(숫자) 부여
- 단계 2: 심사위원 선정 후, 메일 및 문자 발송에 의한 심사 의뢰
- 단계 3: 심사위원은 JAMS에서 심사의견 작성
- 단계 4: 문자와 메일 발송 통해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확인토록 요청
- 단계 5: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는 논문 수정 또는 이의 신청
- 단계 6: 모든 심사 결과를 별도 보관하며, 심사수당은 1편당 3만원씩 지급

〈그림 8〉 『행동분석·지원연구』 논문 투고 및 심사 단계

『행동분석·지원연구』 투고규정 제4조(투고방법)에서 원고 게재가 확정된 후 투고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JAMS에서 논문 제출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및 표준약관(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을 진행하도록 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CCL 설정에서는 원저작자 표시, 저작물 영리 목적 이용의 허락 여부, 저작물의 변경 및 2차 저작에 대한 선택 등 사항에 대하여 투고자가 쓴 글을 타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허락 범위나 조건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설정 및 표시하도록 하였다.

2. 심사 절차의 엄정성

『행동분석·지원연구』는 투고논문과 관련된 심사제도의 구체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행동분석·지원연구』 심사규정 제3조(논문심사 의뢰), 제4조(논문심사 기준), 제5조(논문심사 결과 판정), 제6조(이의제기), 제8조(심사내용의 보안), 제9조(연속게재 및 복수게재에 대한 제한) 내에 명시하고 있다.

『행동분석·지원연구』 투고 논문의 질 및 게재 적합성 평가 위해 투고논문 주제에 부합하는 최소 3인 이상의 관련분야 연구자들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배정 시 동일 기관에서 1인 이상의 심사위원 배치를 지양하고 투고논문에 대한 적절한 심사위원 배정을 위해 2차 타당성 검증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3. 연구윤리 강화 활동

『행동분석·지원연구』는 투고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강화 활동의 구체성과 엄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2018년 9월과 2020년 2월 총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고, 관련 내용을 『한국행동분석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용어 정의), 제6조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행위 및 중복 게재 등의 금지), 제7조 (연구대상의 보호),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 (징계), 제10조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개정을 시기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학회 이사회를 중심으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는 별개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원칙과 절차를 상세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개정일: 2018년 09월 01일, 2020년 2월 15일)하였다.

『행동분석·지원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윤리 엄정성 확보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규정 탑재, 연구윤리교육 배너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탑재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술지 투고자와 학회원의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독자(회원) 전체에게 연구 윤리 교육 관련 공지, 학습 매뉴얼 및 부당 저차표시 예방 가이드(개정판)를 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행동분석·지원연구』 투고 시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kaba.jams.or.kr>)의 ‘연구윤리 서약’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준수, KCI 논문유사도검사 보고서 제출을 필수화하였다. 원고 게재가 확정된 후 투고자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와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작성·서명하여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필수로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논문심사 및 연구자 윤리, 투고과정의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한 내용을 투고논문 모집 시 모집요강과는 별도로 첨부파일로 송부하고 투고규정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및 발행 학술지의 뒷면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2014년 『행동분석·지원연구』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6권 3호 총 49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회는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윤리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4. 워크숍 및 학술대회 개최

『한국행동분석학회』는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술지의 실천집단 독자(회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BA 및 PBS 원리와 실제 활용 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회원은 학술지의 주요 독자이며, 워크숍을 통해 습득한 ABA 또는 PBS 원리와 실재는 이들이 재직하는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그 효과에 대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공유하게 됨으로 순환적 과정이 되고 있다.

『행동분석 · 지원연구』의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 총 12회기의 워크숍에서 강사로 활동하여 1,224명의 현장 전문가에게 ABA 또는 PBS의 이론과 실재에 대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편집위원은 최근 5년간 총 14건의 하계, 동계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학생 문제행동, 학교 부적응 행동 등에 적용된 ABA와 PBS 효과,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선진 연구 방법

〈표 6〉 최근 5년간 워크숍 개최 현황

| 연번 | 개최 일자 | 발표자(직위) | 워크숍 주제 | 참여자 수(명) |
|----|--------------|-----------------------|---|----------|
| 1 | 2015. 8. 22 | 박○○ (편집위원장) | SWPBS 적용 | 55 |
| 2 | 2015. 8. 22 | 백○○○ (회장) | 개별화된 PBS가 특수학교 자폐성 장애 고등학생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효과 | 55 |
| 3 | 2015. 8. 22 | 양○○ (부회장) | 개별시도교수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초등학생의 IEP 단기목표 성취에 미치는 효과 | 55 |
| 4 | 2015. 8. 22 | 김○○ | 행동분석전문가의 역할과 협력체계의 중요성 | 55 |
| 5 | 2018. 7. 18 | 백○○ (회장) | PBS 이론과 실제 | 15 |
| 6 | 2018. 7. 21 | 김○○ |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기능적 언어 평가 | 150 |
| 7 | 2018. 7. 21 | 강○○ | 문제행동의 실용적 중재접근 | 150 |
| 8 | 2018. 7. 20 | 홍○○ | FBA적용의 Generalizability 증진방안 | 150 |
| 9 | 2019. 2. 23 | 백○○(회장) 박○○(편집위원장) | PBS 실행사례 | 150 |
| 10 | 2019. 11. 24 | 홍○○ | 원격훈련(Tele-practice)을 통한 부모 훈련 | 30 |
| 11 | 2019. 1. 30 | 양○○(부회장) | 기초 언어행동 & 고등 언어행동 | 19 |
| 12 | 2019. 2. 7 | 박○○(부회장) | 언어중재 사례 | 340 |

을 공유하며 본 학술지의 발전적인 연구 방향에 적용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행동분석·지원연구』의 성격과 유사한 분야를 연구 및 실천하는 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KAVBA ABA 연구소와 정기적으로 공동 학술발표대회를 개최(예, 2017년, 2019년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한국행동분석 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는 등 상시로 협력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각각 연구하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선진 연구 분야를 활용하여 본 학술지의 발전적인 연구 방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표 7〉 최근 5년간 학술대회 개최 현황

| 연번 | 개최 일자 | 학술대회 명 | 학술대회 주제 | 개최 장소 |
|----|------------|--------|--|---------|
| 1 | 2015.2.28 | 동계학술대회 | ABA 중재의 이론과 실제 | 이룸센터 |
| 2 | 2015.8.22 | 하계학술대회 | 행동분석전문가의 역할과 PBS 적용의 실제 | 공주대학교 |
| 3 | 2016.5.22 | 춘계학술대회 | 장애 학생을 위한 증거기반의 중재방법 심포지움 | 백석대학교 |
| 4 | 2016.7.16 | 하계학술대회 | 장애아동 부적응행동 중재에서의 ABA 국제 동향 | 이룸센터 |
| 5 | 2017.2.25 | 동계학술대회 | ABA행동분석 중재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이룸센터 |
| 6 | 2017.7.15 | 국제학술대회 | Prevent-Teach-Reinforcement 문제행동 중재 방법 | 이룸센터 |
| 7 | 2017.11.03 | 국제학술대회 |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ABA적 접근 및 교육과 사회제도 | 서울역사박물관 |
| 8 | 2018.2.24 | 동계학술대회 | 발달장애 아동의 자해행동 및 공격행동 중재 | 서울어린이병원 |
| 9 | 2018.7.21 | 하계학술대회 |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의 원인 분석 및 실용적 중재 접근 | 이룸센터 |
| 10 | 2018.4.07 | 국제학술대회 | 컬럼비아대학교 Dr. Greer 초청 언어행동분석 | 이룸센터 |
| 11 | 2019.2.23 | 동계학술대회 |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인권과 행동중재 | 국회의사당 |
| 12 | 2019.7.20 | 하계학술대회 | 기능분석에 기반 한 문제행동의 중재 방법 | 이룸센터 |
| 13 | 2019.12.07 | 국제학술대회 |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 | 서울역사박물관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4년 창간호를 비롯해 지난 6년간(2014-2019) 발행되어온 『행동분석·지원연구』의 특징과 학술적 가치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체계를 참고하여 학술지 발행 실적, 학술지 활용성 및 체계성, 학술지 질적 향상 노력 등 세 분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학술지 발행 현황은 창간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연간 학술지 발행 건수와 게재 논문은 창간호 이후 정량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 학술지 주제와 완전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연구 방법은

대부분 실험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학술지가 지향하는 ABA의 기본 철학이 이론적인 탐구만이 아닌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중재를 통한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 지원의 구현을 지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단, 연구 참여 저자의 지역 분포적인 측면에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다소 발생하였고, 향후 학술지와 연구 결과에 대한 공유의 확산으로 투고원(投稿源)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학술지의 활용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다양한 독자(회원)의 확보, 게재 논문 활용을 위한 편의적 접근 시스템의 구축, 편집 논문의 높은 가독성, 저자의 소속기관과 표기 명확성,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의 확보, 학술지 인용지수의 향상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분석 · 지원연구』는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가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논문집의 구성 체계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가독성이 높으며, 학술지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2020년 2월 윤리 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를 개정하였다. 또한 참고문헌에 대한 정확한 식별 및 접근을 위하여 한국행동분석학회는 2020년 5월 KISTI와의 협약을 통해 Prefix를 발급받았으며, 게재논문마다 DOI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학술지의 서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객체의 디지털 식별자(digital identifier of an object)를 의미한다.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재인증 평가에서는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 평가 영역에서 개별 논문의 DOI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2020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 요강(안)」에는 참고문헌에 대한 정확한 식별 및 접근을 위하여 식별정보(DOI 등) 기입 여부를 평가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20a). 또한 「2020년도 학술지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 신청요강(안)」에서도 전체 게재 논문에 DOI를 발급하는 경우 2점의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어 DOI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20b). 『행동분석 · 지원연구』는 게재논문마다 DOI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지 서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등재 학술지 선정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학술논문 온라인출판에 대한 표준규격 준수 여부가 평가의 대상이 될 예정이므로(한국연구재단, 2020a)으로 JATS(Journal Article Tag Suite)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영문초록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행동분석 · 지원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심사 절차의 엄정성, 연구윤리 강화 활동, 워크숍 및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이 실행되어왔다. 편집위원회는 2019년 12월 6권 3호 발간호부터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인 JAMS를 활용하여 논문투고 및 심사의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학술지 발간 절차의 투명성, 체계성 및 엄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투고논문과 관련된 심사제도의 구체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심사 규정을 갖추고 있다. 『행동분석 · 지원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출판) 윤리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과 2020년 2월 총 2차례에 걸쳐 연구 윤리 규정을 개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단, 『행동분석·지원연구』에 게재되는 과반수 연구들이 인간 대상의 실험연구임으로 학술지 독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과 향후 IRB 요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행동분석·지원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전문적 학술지로서 지향해야 할 일관된 전개방향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향후 학술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행동분석·지원연구』는 학술지를 발간 3년만인 2017년에 ‘2017년 학술지평가 신규 및 계속평가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래, ‘2018년-2019년 학술지 평가 신생·소외분야 학술지 지원 사업’에서 2년 연속 신생·소외분야 학술지 선정 등 단시간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행동분석·지원연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문제를 개선하는데 연구 검증된 ABA의 이론과 실재를 공유하는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ABA 및 PBS의 이론과 실재를 집약하고 공유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 연구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행동분석·지원연구』는 향후 더 많은 국내외 독자 확보 및 현장 실천의 확산, 학술논문 온라인출판에 대한 표준규격(JATS) 도입,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논문 편집 체계 및 우수한 질의 영문 초록 기술의 확보,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엄격한 윤리 규정 개정 및 IRB 요구 절차 등과 관련한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 연구자 중심으로 대부분 논문투고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연구 대상이나 연구 장소, 중재 전략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외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국제적 관점의 연구들을 보완해나간다면 보다 글로벌화 된 『행동분석·지원연구』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평가』 체계의 학술지 계속평가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행동분석·지원연구』 창간호부터 2019년도 12월 발행호까지 6년간의 학술지의 양적 및 질적 특성과 학술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향후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을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제언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학술지의 쟁점과 미래 방향성을 제언하는 연구 역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계신 (2013).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자문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정서·행동장애 연구, 29(4), 361-397.
- 박계신 (2016).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응용행동분석 기반 중재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2(2), 309-341.

- 박계신 (2020).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을 통한 위기학생 예방 및 지원 방안 모색. *행동 분석 · 지원연구*, 7(1), 23-50.
- 백은희, 박계신, 이선희 (2019).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및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 · 행동장애연구*, 35(3), 21-44.
- 백종남 (2020).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아동의 기능적 행동평가를 위한 동기사정척도 (MAS)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 *행동분석 · 지원연구*, 7(1), 97-114.
- 백종남, 조광순 (2013).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문제의식과 그 의미. *정서 · 행동장애연구*, 29(2), 149-182.
- 송민영, 이윤석, 서영희, 도경만, 백은희 (2018).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일반학교 통합환경의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 · 지원연구*, 5(2), 159-179.
- 이상복 (2008). 행동치료의 역사적 고찰과 국 · 내외 관련 자격 현황 분석에 따른 전망과 과제. *정서 · 행동 장애 연구*, 24(2), 175-193.
- 이도영, 이성봉 (2019). 응용행동분석 부모교육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의 변화. *행동분석 · 지원연구*, 6(3), 19-40.
- 임은숙, 황복선 (2019).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대안학교 중등 장애 고위험군 학생의 학교적응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행동분석 · 지원연구*, 6(1), 71-100.
- 한국연구재단 (2020a). 2020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 요강(안). 대전: 저자.
- 한국연구재단 (2020b). 2020년도 학술지지원사업 (인문사회 분야) 신청요강(안). 대전: 저자.
- 한국행동분석학회 (2019). 2019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정성평가 설명자료 및 기관규정. 공주: 저자.
- 홍준표 (2014). 응용행동분석의 특성과 발전배경. *행동분석 · 지원연구*, 1(1), 1-19.
- Horner, R. H., Sugai, G., & Anderson, C. M. (2010). Examining the evidence base for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42(8), 1-14.
- Lewis, T., McIntosh, K., Simonsen, B., Mitchell, B. S., & Hatton, H. L. (2017). Schoolwide System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mplications for Students at Risk and With Emotional/Behavioral Disorders. *AERA Open*, 3(2), 1-11.
- Maurice, C., Green, G., & Luce, S. C. (1996).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young children with autism: A manual for parents and professionals*. Austin, TX: PRO-ED.
- Mayring, P. (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 Companion to Qualitative Research*, 1(2004), 159-176.
- McPhilemy, C., & Dillenburger, K. (2013). Parent's experiences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ABA)-based interventions for children diagnosed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0(4), 154-161.

- SAGE Publishing (2020).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Retrieved April 15, 2020, from <https://us.sagepub.com>.
- Sugai, G., & Horner, R. H. (2006). A promising approach for expanding and sustaining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School Psychology Review, 35*, 245-259.
- Swanson, H. L., & Sachse-Lee, C. (2000). A meta-analysis of single-subject-design intervention research for students with LD.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3*(2), 114-136.
- Wikipedia® (2020).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Retrieved April 15, 2020, from <https://en.wikipedia.org>.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Value of 『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The First Issue-2019)』

Baek, Jongnam · Park, Gye-Shi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ation of 『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 from the first issue of 2014 to the December issue of 2019, the utilization and systematic nature of the journals, and th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journal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ation performance of the journal has steadily improved since its inception, and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aper are completely in line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journal. However, the efforts are required to expand the contribution source in the futur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ccessibility of published papers was high in terms of the usability and systemicity of the journal, and the citation index of the journal and the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of the journal were goo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standard (JATS) for online publishing of academic papers. Third,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journals have been actively made in view of the performance of online management systems, strictness of screening procedures, activities to strengthen research ethics, and holding workshops and conferenc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calls for strengthening ethical education and IRB approval for human research activities are needed.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effective information on the utilization, system, ethics, and academic values to be pursued as a professional journal, and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journal's development.

Keywords : The Korean Society for Behavioral Analysis, 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 Applied Behavioral Analysis, Positive Behavioral Support, Academic value

게재 신청일 : 2020. 07. 17

수정 제출일 : 2020. 08. 05

게재 확정일 : 2020. 08. 15

* 박계신(교신저자) : Dep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Korean Nazarene Univ.(gspark@kornu.ac.kr)